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예상 밖 높은 PCE 물가에 차익실현 압력 가중

- 주요 지수 약세 마감: 다우 -0.7%, S&P500 -0.4%
-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에도 시장 전반 하락 압박
- PCE 물가 지표 예상 상회,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Summary

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함.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74% 하락한 44,130.98에 거래를 마쳤으며, S&P 500 지수는 0.37% 떨어진 6,339.39에 마감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0.034% 내린 21,122.45에 장을 마감했으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93% 하락한 2,211.65를 기록함.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매도세를 보임. MS는 클라우드 부문 강세로 장중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했으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함. 메타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 전망을 제시하며 급등했으나, 이는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과 맞물림.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6월 기준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해 예상치를 상회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함. 이로 인해,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촉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요 지수는 장중 일부 손실을 만회하려 했으나, 지정학적 요인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임.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주가는 13% 넘게 급락했으며,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줄줄이 하락함.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제약사에 대한 약가 인하 압박을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유나이티드헬스와 머크의 주가가 큰 폭 하락함.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의구심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정 정책으로 인한 긴장감과 함께 당면한 하락세를 유지함. (다우 -0.74%, 나스닥 -0.03%, S&P500 -0.37%, 러셀2000 -0.93%)

특징종목

아마존(+1.7%)은 인공지능 분야 투자와 광고 비즈니스의 성장 덕분에 주가가 상승함. 장 마감 후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매출 증가와 예상을 뛰어넘은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했으며,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강력한 성장을 보였음. 그러나 어닝스 콜에서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자 시간 외에서 7% 넘게 하락. 메타 플랫폼스(+11%)는 2분기 실적에서 높은 수익을 기록하며 AI 인프라와 인재에 대한 투자로 주가가 급등함. 마이크로소프트(+4%)는 애저(Azure)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성장과 시장 가치의 증가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장 중 9% 넘게 상승하며 엔비디아에 이어 시가총액 4조 달러를 상회하기도 함. 이베이(+18%)는 2분기 실적이 기대를 초과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함. 씨에이치 로빈슨 월드와이드(+18%)는 수익성과 비현금 주당 이익 개선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 자일럼(+10.7%)은 물 기술 분야의 성장 덕분에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며 주가가 급등함. 웨스턴 디지털(+10.2%)은 데이터 저장 수요 증가로 매출과 이익이 예상을 초과하여 상승세를 이어감. 노르웨이저안 크루즈 라인 홀딩스(+9.1%)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크루즈 산업의 회복세와 함께 주가가 상승함.

헌팅턴 잉겔스 인더스트리스(+7.9%)는 최대 규모의 수주 잔고와 현금 흐름 증가로 강력한 주가 상승을 보였음. 제네락 홀딩스(+7.6%)는 전력 저장 솔루션 수요 증가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상승함. 애플빈(+7.5%)은 게임 사업 부문 매각이 재정적 균형을 개선할 전망이었으며, AI 분야의 성장 잠재력 덕분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변화함. 반면 알파벳(-2.3%)은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애드테크에서의 도전과 일부 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 테슬라(-3.4%)는 실적 부진과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계약 체결이 중국 의존도를 줄였으나,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37%로 소폭 하락함. 이는 거래자들이 혼재된 인플레이션과 성장 신호를 주목하는 가운데, 금리가 하락한 데에는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인덱스가 100.06으로 전일 대비 0.25% 증가, 한 달 동안 3.35% 상승함. 특히, EUR/USD는 소폭 하락하여 1.14 수준을 기록함. 이는 미국의 경제 지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임.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가 전일 대비 0.93% 감소한 69.35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국제 경제 불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반면 천연가스는 1.67% 상승하여 3.10달러 수준이며, 금 가격은 0.47% 상승하여 3,290.14달러를 기록함. 이는 귀금속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